

소주 값 오른다

참이슬 출고가 6.45% ↑



맥주에 이어 소주까지 가격이 오른다. 국내 소주 1위 참이슬의 가격 인상을 발표하면서 업계 출신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3년 5개월 만에 소주 출고가격을 6.45%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공장 출고 가격을 병당 1015.7원에서 1081.2원으로 65.5원 올린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2015년 11월 가격인상 이후 원부자재 가격, 제조비 등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했다"며 "3년여간 누적된 인상요인이 10% 이상 발생했으나,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류업계의 출신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맥주와 소주를 판매하고 있는 롯데주류 '처음처럼'은 아직까지 제품 가격 인상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 한 브랜드가 가격을 올리면 출신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조만간 가격인상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보라 기자 bora11@meconomynews.com

“신한울 3·4호기 재개해야 경기-미세먼지 숨통”

공정률 10%, 백지화 비용 1조
업계·학계도 건설 재개 요구
“추경 편성보다 경기 효과 클 것”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요구가 원전업계를 넘어 학계까지 이어지고 있다. 원전 가동률을 높여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건설 재개에 따라 경기부양, 지역 경제활성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탈원전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유지, 발전시킨다면 향후 수출까지 도모해 볼만 하다는 것이다. 16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제 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면서 건설이 중단됐다. 신한울 3·4호기의 공정률은 10% 안팎이다.

정부 실시계획 승인 심사가 중단된 상태라 건설재개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 간의 사업 보상액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양측 간 보상규모 차이가 1700억 원이나 난다. 또 최대 8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매몰비용까지 겹쳐 백지화 비용은 1조원에 다다른다. 정부가 선불리 백지화를 선언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울들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탈원전'을 미세먼지 원인으로 보는 여론이 높아졌다. 화석연료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 늘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제2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에서는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가 “원자력 발전량이 15% 줄었는데 발전량이 그대로였다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더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



지난 1월 21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도하는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33만인의 공개 청원 전달'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사진=박성원 기자

먼지가 늘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교수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는 폐쇄했으나 석탄발전량이 15% 늘었고 액화석유가스(LNG) 발전은 20% 늘었다”면서 “인구 100만 도시에 LNG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면, 휘발유 400만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미세먼지로 인한 여론악화에 부쩍 신경쓰는 모습이다.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부양과 동시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추경 편성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클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추경까지 편성해 경기부양을 모색하는 데 경기부양 효과를 내고 미세먼지도 해결할 방법은 신한울 3·4호기 재개”라고 밝혔다. 탈원전 선언으로 원전 증가가 부담스럽다면 준공시기를 조율해 한울 1·2호기 수명이 마무리되는 2028년에 준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선언하면

서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3년 간 원전 수출은 단 한건도 올리지 못했다. 영국 뉴젠 원전 우선협상권은 백지화됐고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역시 미국의 적극 공세에 밀리는 모습이다. 체코,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국내 원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수원 등을 찾아 원전 산업체를 둘러보고 있으나 실제 수출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들 국가 역시 국내 원전 서플라이 체인이 수년 뒤에 끊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대

체산업으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에 집중하고 있다. 당장 탈원전 직격탄을 맞은 원전 업계와 지역 경제에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국내 원전 30기의 해체시장이 총 22조원에 달한다고 내다보고 있으나 원전 1기 해체 비용이 대부분 매립지 매입 등 폐기물 처리비용이다.

원전 관계자는 “광장 일감이 사라질 것이라 두려움에 원전해체시장을 환영하고 있으나 원전생태계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최영경 기자 orange@meconomynews.com

Advertisement for LH (LH Housing Corporation) featuring a large graphic of a globe and the slogan '더 안아주고 더 알아주는 든든한 기업, LH'. It lists various services like housing, elderly care, and social welfare.

“3D프린팅이 4차산업 기폭제 역할 맡을 것”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한국3D프린팅협회 업무협약 체결
기업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정보교류, 공동사업 등 추진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김오연)는 한국3D프린팅협회(회장 최수영)와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3D프린팅은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하는 차세대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로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 기대보다는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3D프린팅 산업의 현실을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고도의 전문지식과 국가자격을 갖춘 경영지도사·기술

지도사”로 구성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한국3D프린팅협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3D프린팅 산업의 활성화와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3D프린팅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컨설팅 ▲3D프린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D프린팅 산업 관련 연구조사 및 정보교류 ▲공공 및 민간분야 공동사업 추진 ▲3D프린팅 산업 저변 확산을 위한 홍보 등이다.

김오연 회장은 “3D프린팅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미래시대를 주도할



(왼쪽)한국3D프린팅협회 최수영 회장,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김오연 회장. 사진=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핵심 기술인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역량을 집결하여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3D프린팅 산업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arete@meconomynews.com

아시아나 인수 고개 짓는 기업들... 속내는 몸값

업황 성장세라 '매력적인 매물'... 기업가치 2조
SK CJ 한화 롯데 애경 금호석화 등 애써 느긋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결정되면서 SK, 한화, CJ, 애경, 롯데, 금호석화 등이 인수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기업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획에 대한 질문에 “검토 중인 바 없다”, “사실 무근이다”며 부인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인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수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응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인수 발표에 따른 추가변동이 인수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지난 12일 최하점 SK그룹 회장이 인수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이지 않자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박용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금호산업 구매금액이 1조원이고, 신주인수를 통한 신

규자금 유입은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서는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러 기업들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산업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아시아나항공은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이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국제선 22개국·64개 도시·7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전세계 30위(국제여객수송부문)를 기록하고 있는 항공사다. 또한 최근 확보한 인천-몽골 운수권을 비롯해 미주, 유럽, 대양주 등 수익이 높은 중장거리 노선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용객이 많

은 시간대의 공항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횟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항공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 여객은 전년 대비 7.5% 늘어난 1억1753만명으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항공여객은 2014년 8143만명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2016년 1억명을 넘어선 후 매년 성장하고 있다. 이중 국적항공사를 이용한 여객은 8050만명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전체 여객의 24%(1966만명)를 담당했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매출은 연결기준 7조 1800억원대로 전년 대비 9% 가까이 성장했다.

이 밖에도 현존하는 항공기 중 최신에 기종인 A350을 8대 보유하고 있다. A350은 △넓은 좌석 △차세대 엔진 △소음과 탄소배출 감소 △국내 유일 기내 인터넷 서비스와 휴대전화 로밍서비스 등 강점을 갖고 있다.

박성수 기자 parkss@meconomynews.com